

국가이데올로기와 SF,  
한국 청소년 과학소설  
— 『학생과학』지 수록작을 중심으로

조계숙\*

1. 서론
2. 『학생과학』의 정치적 시대적 정체성
3. 한국 청소년과학소설 작품과 SF작가클럽의 형성
4. 청소년 과학소설의 세계 1: 과학 교양과 교육으로 무장하라
5. 청소년 과학소설의 세계 2: 과학적 애국주의와 평등한 과학사회학
6. 결론

국문요약

『학생과학』(1965.11~1983.12)은 1960년대에 ‘청소년을 위한 국내 유일의 과학 교양지’를 표방하며 간행되었던 잡지이다. 우리 문학에서 과학소설의 발달이 미미한 가운데, 이 잡지의 창작과학소설들은 한국과학소설의 지평도를 풍성하게 한다. 1960년대에 시작한 박정희 정권의 국가이데올로기는 과학 분야에서도 작동되었고, 국외의 우주개발 경쟁은 과학주의를 촉진하였다. 『학생과학』지는 이런 흐름을 적극 추종했다. 이 잡지에서 활동한 작가는 서광운, 오민영, 강성철, 이동성 등이었고, 이들이 창작한 약 25편의 한국 과학소설에는 당시의 시대적 정치적 분위기가 충분히 반영되었다.

---

\* 대전대 강의교수

과학주의의 신펙(新風)은 ‘젊은 열’ 속으로 강력하게 불어와 거대한 환상의 제국을 건설하였다. 과학교양과 교육 의지로 무장한 주인공들은 과학정신의 억압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과학발달의 종착역에는 디스토피아 대신 유토피아가 기다려야 했다. 박정희 정권기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우상화 작업이 소설 속에 드러나는 등 과학주의는 애국심과 결합하여 과학적 애국주의로 더욱 강건해졌다. 우주과학시대로 접어든 국외상황에 적용할 새로운 법률을 고안하는 등 과학사회학에 대한 관심도 수반되었다. 한편 1970년대 후반기에 불온한 기성세대를 우의적으로 공격하는 소설이 등장하면서 『학생과학』이 창간이후 보였던 편집방향은 균열의 변곡점에 도달한다.

(주제어 : 청소년 과학소설, 『학생과학』, 서광운, 오민영, 강성철, 이동성, 과학 교육, 과학적 애국주의, 과학사회학, 환상의 제국)

## 1. 서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문단에 출현한 과학소설은 여타 다른 근대물처럼 매우 낮은 장르였다. 한국과학소설사의 첫 장은 박용희가 쥘 베른의 『해저 2만리』를 번역한 『해저여행기담』(1907)이었다. 이어 이해조가 쥘 베른의 〈인도왕녀의 5억 프랑〉을 번안하여 〈철세계〉(1908)를 선보였다.<sup>1)</sup> 순수한 과학소설 창작으로 거론되는 작품으로는 김동인의 단편소설 『K박사의 연구』(1929), 문운성의 장편소설 『완전사회』(1965), 복거일의 『역사 속의 나그네』(1991), 이후 2000년대 대중문화시대를 맞이하여 활발히 나온 듀나 등의 과학소설이다.

1) 대중문화연구회,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58-59쪽.

우리나라의 과학소설은 소설사라고 이름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창작이 부재하다. 왜 이런 특이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장르를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음을 가정해보자. 박용희가 번역한 작품의 제목 『해저여행기담』을 보면,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의 출판계에서는 과학소설을 일종의 ‘기담’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07년이라는 시대가 아직 이광수나 김동인이 활동하기 전이어서 현대적 소설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재했고, 과학소설의 장르적 측면의 우세보다 내용의 ‘신기함’에 이끌렸던 현상이었다. 일제강점기의 대중독자들이 과학을 소비하는 방식도 흥미나 호기심에서 시작하였고, 이는 ‘기담’과 ‘한담’의 형태였다.<sup>2)</sup> 대중독자들은 짧고 재미나는 기사 형태로만 과학을 소비했고 창작물보다 번역물로 과학소설을 수용하였다.

김동인의 소설 『K박사의 연구』는 맬터스의 인구이론을 듣고 미래에 식량이 부족할 것을 걱정한 어떤 박사의 황당한 실험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 작품은 김동인의 작품세계와 거리가 있는 특이한 작품으로 과학소설과 유머소설의 경계에 있다. 디스토피아 미래를 다룬 문윤성의 과학소설 『완전사회』가 『주간한국』이 공모한 제1회 추리소설 당선작이었다는 점을 주목해보자. 이는 1960년대에 이르러서도 우리 문단은 과학소설과 추리소설의 장르를 크게 변별하지 않았던 증거다.

과학소설 장르에 대한 인식의 미흡은 결과적으로 과학소설사의 명맥이 부재에 가까운 현상으로 이어졌다. 어른들을 위한 과학소설이 길을 잃고 있을 시기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과학소설은 새로운 목적의식 속에서 에너지를 추동하고 있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시점이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과학이 발전해야 하는데 이미 성인이

2) 한민주, 「인조인간의 출현과 근대SF문학의 테크노크라시 - 「인조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5, 한국근대문학회, 2012, 417-420쪽.

된 사람보다 아동청소년부터 과학을 교육해야 장래에 과학입국을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박정희 새 정권의 국가이데올로기는 학생들을 겨냥한 매체 속에서 조용히 작동을 시작하였다. 이런 미션은 아동청소년용 잡지에서 수행되었다.

이 글은 한국과학소설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과학을 매개로 만들어진 '환상의 제국으로서의 한국 청소년과학소설'의 흥망성쇠를 따라가 보려는 것이다. 과학소설은 『새벗』, 『어린이 연합신문』, 『새소년』, 『가톨릭 소년』 등 아동매체, 『학원』, 『학생과학』의 청소년 매체에 주로 수록되었다. 특히 『학생과학』은 약 20년간 많은 청소년 과학소설을 축적한 의미가 지대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학생과학』에 수록되었던 한국 창작 과학소설을 기본 자료로 하여 당시의 정치적 시대적 정체성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탐구하려고 한다.

한국과학소설 연구 또한 지체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문단에서 과학소설을 경시했던 흐름과 직결된다. 최근에 나온 업적으로 임태훈<sup>3)</sup>과 김지영<sup>4)</sup>의 글은 이 논문과 직접 관계가 있다. 임태훈은 과학소설을 '시대의 증환(症幻)'을 읽는 매체로 보면서 1960년대 남한의 정치적 면모를 당시 나온 한국과학소설을 통해 분석하였다. 김윤주의 『재앙부조』(1960), 문운성의 『완전사회』(1965), 60년대 『학생과학』 수록 과학소설 등을 정치적으로 재평가하였다. 김지영은 우주 소재의 소설을 대상으로 '우주개척담'과 '우주전쟁담'으로 나누어 특징을 살폈다. 창작물이 아니라 번역된 과학소설에 대한 최애순<sup>5)</sup>의 연구는 그 시대를 살피는 데 좋은 자료가

3) 『1960년대 남한 사회의 SF적 상상력: 재앙부조, 완전사회, 학생과학』, 『우애의 미디어올로지』, 갈무리 2012, 239-273쪽.

4) 『1960-70년대 청소년 과학소설 장르 연구 - 『한국과학소설(SF)전집』(1975)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35집, 2013.5, 125-149쪽.

된다. 이정옥의 문윤성 작품 연구는 과학소설 전반에 관한 폭넓은 견해를 보여준다.<sup>6)</sup>

## 2. 『학생과학』의 정치적 시대적 정체성

『과학세기』와 『학생과학』은 과학을 표방한 전문잡지로서 1960년대 이후 벌어진 급격한 시대적 변화를 담지하고 있었다. 출판인 남궁호는 1964년에 과학자와 과학도를 위해 『과학세기』를 창간했고, 뒤이어 1965년에 11월에 『학생과학』을 시작하여 1983년 12월까지 청소년 전문 과학잡지로 경영을 계속하였다. 이후 1984년 1월부터 3월까지 휴간되었다가 4월호에 재개되는데 잡지의 끝에는 출판사명이 없이 그동안의 독자 성원에 감사하는 글이 실려 있다. 5월호부터는 확실하게 한국일보사 장재구 대표가 잡지를 인수한 것을 알 수 있다.

남궁호 대표가 경영했던 19년 6개월간의 『학생과학』은 한국일보사가 인수한 『학생과학』과 정체성이 달랐다. 남궁호의 『학생과학』은 “청소년을 위한 국내 유일의 과학교양지”를 표방했고, 한국일보사의 『학생과학』은 “국민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과학교양지”였다. 이는 단순히 독자 타겟이 달라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 지향하는 방향과 분위기가 서로 달랐던 토대에서 오는 차이점이 컸다. 이 글에서는 독자 타겟, 시대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국일보사가 인수하기 이전의 남궁호 대표의 『학생과학』에만 집중하려고 한다.

5) 『우주시대의 과학소설 - 1970년대 아동전집 SF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13.9, 125-149쪽.

6)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로 떠난 모험 여행의 서사 - 문윤성의 『완전사회』론』, 대중문학연구회,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139-165쪽.

1960-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절로서 국가의 정치이데올로기가 독특한 시대였다. 『학생과학』이 간행되었던 때와 중첩되는 시기이므로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학생과학』 초창기의 권두언 중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과장은 20세기 들어 과학적 풍토가 없는 국가는 후진국이 되었다면서 젊은이들에게 ‘과학의 나라’를 건설하여 살림을 윤택하게 만들자고 강조한다.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을 세워 정책적으로 과학 발달에 후원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sup>7)</sup> 실제로 정부는 5.16 이후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과학과 관련한 하부 정책으로 ‘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을 세웠다.<sup>8)</sup>

『학생과학』은 새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과학기술진흥계획과 같은 방향의 길을 걸었다. 창간호의 글 『창간에 붙여』를 통해 대표의 시대적 인식을 읽어보면, 그는 사고, 생활을 과학화하여 우리나라가 전세기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과학화와 인류의 복지가 비례한다는 전망도 하고 있었다. 이것을 이루는 ‘가깝고 빠른 길’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있으며, 그것은 과학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해당한다고 말한다. ‘생활의 과학화’로 압축된 그의 간행사에는 선진조국으로 나아가는 애국적 사명감 내지 욕망이 탑재되어 있다.

『학생과학』에 수록된 과학소설들의 시대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잡지보다 이전에 나온 아동과 청소년 과학소설들<sup>9)</sup>이 존재하는데도 『학생과학』에 수록된 과학소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청소년 과학소설

7) 『과학하는 마음을 갖자』, 『학생과학』, 1967.1.

8) 송성수, 『과학기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40-55쪽.

9) 초창기 『학원』에 실린 과학소설의 비중은 미미했다. 그나마 1957년부터는 과학소설의 수록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오소백의 ‘과학탐정’ (제2의 지구) (1957), 장수철, ‘과학탐정소설’ 〈잃어버린 지하왕국〉 (1958-59), 한낙원, 〈금성탐험대〉 (1962-64) 등 몇 작품이 확인된다.

창작에 있어서는 『학원』이 선취한 지점이 분명히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학원』이 한국전쟁기와 그 이후의 여가와 오락을 담당한 문화매체로서 과학소설을 다루었다면, 『학생과학』은 1961년 5.16이후 달라진 시대와 학생의 관계성을 과학소설에서 드러내고 있다. 1950년대가 정치적 혼란을 겪은 학생들을 위로하는 시기였다면, 1960년대와 70년대는 국가의 새 질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을 요구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학원』의 오락적 분위기는 급속히 침체해갔다. 대신 학습지 『진학』(1965년 창간)이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조응을 시도하였다. 군사문화시대의 정치와 교육의 권력자들이 청소년들이 오락적 소비를 억제하고 조용히 착한 수험생으로 교실에 앉아있기를 바랐던 흐름<sup>10)</sup>과 관련이 된다.

『학생과학』은 창간 당시부터 오락성과 통속성을 비켜서 새 시대 새 교육의 담당자를 자처하였다. 지면의 거의 90% 이상은 과학지식과 교육 현장, 학생들의 과학활동 소개, 과학소설과 만화 연재로 구성하여 교양과 교육을 충족하고 있었다. 남궁호 대표는 ‘흥미와 교육과 애국’을 모두 내건 중요한 선택을 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흥미’는 ‘오락’이 아니라 ‘교양’으로 수위를 살짝 높인 수준이었다.

새 시대의 새 물결은 우리나라 밖에서도 크게 일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초부터 늘 열강에 뒤쳐진 역사를 보냈다. 따라서 새 정부는 5.16의 당위성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하였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우리와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지만, 근대화 이후 벌어진 갭을 더 크게 하지 않으려는 의지는 무엇보다 강했다. 과학발달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

10) 조계숙, 『탐정소설의 민족주의적 의장과 대중오락화』, 대중서사장르연구회 지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3.추리물』, 이론과실천, 2011, 354-386쪽.

조계숙, 『알개들의 전성시대와 웃음의 수사학』, 대중서사장르연구회 지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4.코미디』, 이론과실천, 2013, 240-266쪽.

려는 시대적 정치적 호명 아래서 과학교육은 실천적 도구가 되었다. 『학생과학』지에 수록된 과학소설들도 같은 처지에 놓이는 것이 자명했다.

### 3. 한국 청소년과학소설 작품과 SF작가클럽의 형성

『학생과학』지의 과학소설을 세 방향으로 분류하면, 한국 작가의 순수 창작, 해외 작품의 번역 및 번안, 특별한 목적의 기획소설 등이다. 한국 작가의 순수창작 과학소설은 약 25편 확인된다. 길이는 장편이 대부분이며, 중장편과 중편이 그 다음으로 많다. 단편은 거의 존재가 미미하다. 과학소설이 25편이나 되는 수확은 이전의 어느 매체에서도 없던 일로서, 이는 한국 청소년과학소설의 환상 세계를 집단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5편을 소재나 하부장르로 유형을 분류해보면, 우주 심해 모험SF류, 추리SF류, 로맨스SF류로 세분화할 수 있다. 세 유형은 적절하게 서로 섞이기도 한다. 지구 밖의 우주나 지구 내의 심해는 과학소설의 배경으로서 가장 관습적인 테가 있다. 미지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신기하고 모험적인 이야기는 지금도 국내외의 많은 과학소설에서 추구하는 유형이다. 추리SF는 기존 독자들에게 익숙한 추리서사적 틀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유형이다. 추리소설과 과학소설은 ‘과학’을 다루는 장르로서 유사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손쉽게 융합한다. 로맨스SF류는 좀 독특한 경우이다. 이 유형은 청소년들의 사랑보다 성인 남녀의 로맨스를 주로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 25편의 작품을 작가와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서광윤(서기로) : 장편 『북극성의 증언』(1965-66), 장편 『해류 시그마의 비밀』(1967), 장편 『관제탑을 폭파하라』(1968), 장편 『우주함대의 최후』(1969), 장편 『절대시간 003으로!』(1974-75), 『아공간의 밀사』(1977).
- 오민영(오영민) : 중편 『지저인 오리거』(1966-67), 장편 『화성호는 어디로』(1967-68), 중장편 『바다밑 대륙을 찾아서』(1968-69), 중장편 『사건 2732년!』(1971-72).
- 강성철 : 중편 『방랑하는 상대성인』(1966), 중편 『우주에서의 약속』(1968), 장편 『서기 2026년』(1974-75).
- 이동성 : 중장편 『크로마농인의 비밀을 밝혀라』(1965-66), 장편 『악마박사』(1971-72), 장편 『지문의 비밀』(1972-73).
- 문흥기 : 중편 『코리아룸 254를 찾아라』(1979), 장편 『환상의 제국 곤드와나시 티를 찾아라』(1979-80).
- 기 타 : 김학수의 중편 『우주 조난』(1971), 이형수의 장편 『잠수함 유격대』(1976-77), 주승원의 중편 『사라진 원자력잠수함을 찾아라』(1979), 신문성의 장편 『SOS 안드로이드』(1981), 김병일의 중편 『21세기의 인형극』(1981), 박석기의 단편 『기적』(1966), 지영의 단편 『이별』(1967).

해의 작품의 번역 과학소설로는 일반적인 SF와 동물소설, 생태소설 등이 연재되었다. 웰즈의 단편 『도둑맞은 세균』(1965), O.E.해밀턴 원작 『육체환원기』(1966), 씨이튼의 동물소설 <지혜 있는 동물 티토>(1971-72), 리처드 바크의 동물생태소설 『갈매기 조나산』(1973), G.K.오닐 원작 『우주식민지』(1978), 아더 클라크 작 SF <21세기 우주대모험>(1982-83), 델레이 원작 SF 『로봇트 렉스의 모험』(1983) 등이 실려 있다. 번안작가로 가장 활약이 컸던 이흥섭의 작품으로 『시간포 계획』(1978-79), 『안개속의 통로』(1979) 등이 있다.

기획소설은 교육, 다큐, 흥미의 세 가지 목적으로 수록되었다. 창작과학소설에서도 과학교육을 다루기는 하였지만, 기획소설은 내놓고 과학교육을 표방할 수 있어서 교육의 효과가 컸다. 과학자의 전기인 『과학의

별들' 코너에 강민 작 「마리 퀴리」(1972), 「차알즈 다윈」(1973) 등이 실려 있다. 다큐 느낌의 기획으로 신동한 주간한국 기자가 쓴 「식인사자 패터슨의 대결」(1973.2)나 일본 원작의 고대사 연구가가 보고 들은 UFO 이야기를 재구성한 「UFO이야기」(1975.11) 등이 있다. 흥미를 강하게 표출하는 기획소설의 경우도 단순히 오락성을 노린 것이 아니라 학습의 흥미를 높이려는 것들이었다. '흥미만점 SF추리', 'SF게임'을 표방한 이홍섭의 「공상과학에의 도전」(1973)은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과학 퀴즈를 내고 답을 알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소설이었다. 따라서 이런 흥미 기획 소설은 소설보다 학습도구로 기능하였다.

과학소설 창작의 축적은 『학생과학』지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작가군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젊은 열 속에 과학주의의 신품을 붙여넣어주고 싶다.”<sup>11)</sup>는 욕망의 표현은 한국SF작가클럽의 회장 서광운 작가의 말로, 작가 개인의 생각을 넘어서서 당시 형성된 작가군의 의지를 대변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서광운은 1968년에 SF작가클럽을 발족하여 회장이 되었다.<sup>12)</sup> 회원은 서광운, 지기운, 윤실, 오민영, 강성철, 강승언, 이동성, 서정철, 김종안이었다. SF작가클럽 간사이자 『학생과학』 편집장이었던 지기운의 글을 보면, 신문학 60년 이래 과학소설이 창작된 적이 거의 없었고 최근 중고교 상대 잡지에서 조금씩 SF를 다루는 단계라고 한다. 멤버들의 소속은 서광운(SF작가클럽회장), 오민영(학원 주간), 강성철(주부생활 부록부장), 이동성(월간중1 편집차장), 강승언(광운전자고교 교사), 윤실(학생과학 편집차장), 서정철(만화가)로 소개되어 있다.<sup>13)</sup> 9명의 회원 중 『학생과학』에 연재한 작가는 서광운, 오민영, 강성철, 이동

11) 「북극성의 증언을 마치고」, 『학생과학』 66.12.

12) 『동아일보』, 1969.1.4.

13) 『동아일보』, 1969.7.30.

성이었고, 윤실은 『학생과학』의 편집차장으로서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이들의 활동은 한국최초의 과학소설전집인 『한국과학소설(SF)전집』 10권(해동출판사, 1974)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학생과학』의 배양토에서 자양분을 얻은 SF작가클럽의 형성은 한국과학소설사에서 중대한 사건이었다.

#### 4. 청소년 과학소설의 세계 1: 과학 교양과 교육으로 무장하라

교과서를 넘어서는 최신지식의 초고속 전달은 잡지 데스크의 중요한 지침이었다. 『학생과학』은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한 최신 과학이론이라든지 우주탐사 뉴스 같은 것들을 서둘러 업데이트하려고 했다. 이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정치적 시대적 임무에 편승하여 같은 경로를 선택한 잡지사로서 당연한 맥락이었다. 과학소설은 교육의 도구로 소환되어 소비되었고, 고교생들이 가진 비과학적 태도와 정신을 이성적인 과학으로 치환하는 것이 중요한 명제였다.

청소년 과학소설에 등장하는 전형적 인물을 교육과 관련하여 보면, 피교육자와 교육자의 상하관계가 늘 나타난다. 『학생과학』지의 첫 연재 소설로 등장한 이동성의 『크로마농인의 비밀을 밝혀라』(1965-66)의 주인공은 고교과학반 학생 2명과 과학교사이다. 이들이 한라산 생태탐사의 선발대로 등반 중 우주인<sup>14)</sup>(외계인)에게 납치되어 벌어지는 사건이 중심 이야기인데, ‘준수’학생은 갑자기 나타난 괴물체를 어느 과학소설에서 읽은 비행접시로 보고, ‘홍식’학생은 뉴스에서 본 것처럼 중공에서

14) 『학생과학』의 소설 속에서 사용하는 ‘우주인’이라는 어휘는 지금의 ‘외계인’에 해당한다.

날려보낸 간첩 풍선이 아닐까 추정한다. ‘중공’은 당시 소련연방과 함께 가장 현실적인 적이었다. 반면 물리학 교사인 김선생은 괴물체를 기상 현상, 신기루, 자성의 성질 등으로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괴물체에 납치되어 3일만에 화성으로 가는 과정 중에도 ‘홍식’ 학생은 최근 본 우주영화에서 제미니6호의 우주선 내 우주비행사가 무중력상태에서 공중에 떠서 창밖으로 지구를 바라보던 장면을 떠올리고, 김선생은 지구와 화성의 거리, 별빛의 도플러효과를 설명한다. 이는 청소년과학소설의 인물의 전형적 구도이다. 학생들은 과학소설이나 우주영화 같은 픽션,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서 추정의 근거를 찾는데 교사는 과학원리와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과학 교양의 교육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지식의 과다 노출은 과학소설이 소설인지 교과서인지 혼동하게 만들 때도 있다. 25편의 과학소설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과학소설은 우주 모험 SF이다. 따라서 소설에는 우주의 여러 행성에 대한 천문학적 지식, 지구와 우주의 시간 차이를 다룬 상대성원리, 로켓의 운항원리 등 다양한 과학지식을 기본적인 소재로 삼아 환상의 경로를 걷는다. 박석기의 단편 『기적』(1966)이 단적인 사례이다. 주인공 한국학생이 세계의 과학퀴즈대회에서 우수한 상품으로 달에 간다는 설정인데 과학퀴즈의 문제는 ‘달이 생긴 원인 3가지’이다. 소설은 마치 과학책의 한 부분을 옮겨놓은 것같이 3가지 원인을 나열할 뿐 서사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작가 스스로 창작과 교육의 충돌을 고백한 경우도 있다. 서기로(서광운) 작가는 1960년대 우리나라가 아직 1차 산업시대였던 만큼 농업과 수산업의 과학화를 다루기 시작하여 차차 지구의 에너지 문제로, 우주 물리학 이론으로 관심의 폭을 점점 넓혀갔다. 『해류시그마의 비밀』(1967) 연재 후기에서 작가는 『학생과학』지 독자들이 자신의 소설을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딱딱한 과학사실의 나열’이라고 평했다고 전해준다. 서광운의 프로필을 보면 그가 과학전공자로서 다른 과학소설가들보다 난이도 높은 과학이론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작품은 청소년 대상의 과학소설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종종 있다.

비과학적 학생의 태도는 어떻게 교정의 변화를 맞이하는가. 오영민의 『바다 밑 대륙을 찾아서』(1968-69)에서는 화산 폭발로 대서양에 가리앉았다는 전설적인 도시 아틀란티스가 바다 밑에 실재해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도시는 수중에서 천 명 이상이 지낼 수 있을 만큼 과학이 발달해있고, 이들은 외계인인 아니라 지구인이다. 전설 속의 악의 신인 ‘바알 시이퍼’는 아틀란티스인들을 괴롭히며 외계인인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까봐 과학발달을 저지해왔다. 그동안 아틀란티스인들은 악마에게 과학발달을 억압 당해 더 이상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지상과 연락을 못했던 것이다. 최용현이라는 해양학연구소 소원과 마라코트 박사는 대서양 심해를 탐사하던 중 우연히 그들과 조우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박사가 기싸움을 통해 악마를 제거하고 아틀란티스를 구한다. 최용현이라는 인물은 청소년 독자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꾀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처음에 감정적이고 과학자답지 못했던 태도를 지녔던 한국청년 최용현이 박사와 기사장의 과학정신에 감동을 받아 변화하는 것이다.

과학정신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억압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영민의 『지저인(地底人) 오리거』(1966-67)와 『바다 밑 대륙을 찾아서』(1968-69)에서 추구한 주제이다. 두 작품은 지구 밖의 우주로 가지 않고 지구 심해로 들어가서 외계인과 만난다. 이런 환상류는 인류의 역사 중에서 살짝 기록이 생략된 부분, 즉 미스터리한 과거 역사의 틈을 비집고 들어서면서 가능해진다. 작가는 마야제국의 번영에 대한 수수께끼, 화산 폭발로 사라졌다는 아틀란티스의 사실성 여부에 상상력을 집중하면서, 마치

막에는 지구의 과학이 계속 발달해야 하고 과학정신은 절대로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제로 나아간다. 『지저인 오리거』는 비행기 추락에서 살아난 서태일이 신비한 여인 오리거를 따라가면서 벌어지는 환상적인 일을 다룬다. 12세기경 마야제국에 살고 있던 마야인이 사실은 외계인이었고, 그들은 700년 전 우주에서 조난하여 지구에 머물면서 지구의 역사를 다 보아왔고 미소의 우주개발도 알고 있었다. 그는 우호적인 태도로 지구인의 과학이 빨리 발달해야 자기들이 도움을 받아 귀향할 수 있다면서, 지구가 우주과학 연구에 힘쓰면 50년 후면 번영할 것이라고 예지한다.

과학발달의 종착역에서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청소년들이 과학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과학정신으로 무장을 한다면 유토피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대신 디스토피아가 검은 입을 벌리고 서 있는 것 아닐까. 일반적으로 한국 청소년 과학소설은 맹목적인 유토피아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디스토피아를 피해갔다. 대신 디스토피아가 일어난 우주 행성이나 미래의 지구를 보여주면서 올바른 과학정신을 가져야 하겠다는 깨달음의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었다. 오민영의 『화성호는 어디로』(1967-68)의 서술자는 H.G. 웰즈를 거론하면서 “H.G. 웰즈라는 영국의 소설가는 화성인이 굉장한 과학무기를 가지고 지구를 공격해 온다는 소설을 써서 온 세상 사람들을 전율케 했다.”(1968.1.74쪽)고 말한다. 이는 당시 독자들이 디스토피아 소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려준다. 웰즈가 디스토피아를 묘사한 이유는 바르지 않은 문명을 비판하는 방안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웰즈 소설의 주제를 간과한 경향이 있었다. 암울한 디스토피아 풍경을 일부러 청소년에게 전시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 웰즈의 작품세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문학계가 가졌던 디스토피아에 대한 의견은 국제펜클럽회의 의제인 『과학

시대에 있어서의 상상문학』을 놓고 벌인 작가들의 토론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기성 소설가인 주요섭과 신진 비평가인 이어령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는데, 기성작가는 디스토피아를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sup>15)</sup> 『학생과학』지에 속한 과학소설가들은 순문학계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었지만 과학교육의 명제를 가진 청소년 소설을 창작하는 입장이었으므로 디스토피아를 묘사하는 데 주저함이나 조심스러움이 수반되었던 것이다.

외계의 행성에서 디스토피아를 겪고 있는 장면을 그린 몇 안 되는 작품이 그래서 특별히 논의되어야 한다. 외계인들은 반성적 시각으로 지구 탐사대에게 디스토피아를 보여준다. 서광운의 『우주함대의 최후』(1969)는 과학이 핵전쟁에 이용되어 디스토피아를 겪고 있는 X4호별의 내전을 다루었다. X4호별에서는 다시는 그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평원족(부리마라족), 이전의 문명을 재건하려는 산악족(뼈오라족)간의 대전투를 통해 작가는 과학발달의 끝이 디스토피아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서광운의 『절대시간 003으로!』(1974)에는 편광성 오메가가 은하계를 돌던 중 강한 방사능을 받고 멸망한 비터별의 이야기가 나온다. 시그마5호별에서 후비아루 황제를 만난 지구의 우주 원정대원들은 그들이 지하에서 5만 년간 문명을 재건하느라 애를 써왔으며, 지구인들은 욕심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문명은 허망하게 사라질 수도 있으니 물질에의 욕심 이전에 올바른 정신이 있어야 물질의 발달이 의미 있다는 말이었다.

지구가 겪는 디스토피아를 다룬 또다른 소설로 오민영의 『사건 2732

15) 1959년 서독에서 열릴 제13차 국제펜클럽대회를 앞두고 펜클럽 한국본부위원장인 주요섭 작가가 조경희, 전숙희, 김성한 작가 등과 토의한 결과를 기고하였다. (『동아일보』, 1959.4.13-14.) 펜클럽멤버가 아닌 이어령이 주요섭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펜의 논제를 말한다』, 『동아일보』, 1959.4.24-25.)

년!』(1971-72)가 있다. 2732년 어느 날 외계인의 지구 침공으로 아시아의 제1도시 서울을 포함하여 세계적인 대도시들이 소실되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난다. 2732년의 미래에 화성과 금성은 지구의 식민지가 되어 있고, 문명이 발달하여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하게 바뀌어 있다. 그런데 대도시 공격으로 통합정부가 마비되면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문명은 2천 년이나 역전될 것이라며 최901E는 두려움에 떠다. 그는 시체나 전염병보다 문명 역전을 더 두려워하는 인물이었다. 이 소설에서는 디스토피아를 문명비판이 아니라 퇴보로 받아들인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직진의 정신은 없는가. 강성철의 과학소설에서 그 단면을 볼 수 있다. 조지 오웰의 『1984』(1949)에서 벌어지는 세계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미래이다. 강성철은 이 작품을 의식한 듯 『서기 2026년』(1974-75)에서 1984년에 하고 있는 연구가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 것임을 확인받는 이야기를 다루었다. 주인공 소년은 1984년 현재와 2026년을 오고가면서, 우려와 달리 과학이 옳게 사용되고 있는 밝은 미래를 본다. 과학의 비약적 발전의 종착역에서 기다리는 유토피아로 인해 1960-70년대를 살아간 청소년들은 안심하고 과학을 장착할 수 있었다.

## 5. 청소년 과학소설의 세계 2 : 과학적 애국주의와 평등한 과학사회학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미국과 소련은 냉전상태로 서로 대치하기 시작하였고, 정치, 군사, 외교, 우주개발 등에서 서로 경쟁하였다. 1960년대는 특히 우주개발 영역에서 어느 나라가 최초로 우주로 갈 것인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였다. 이런 상황은 1980년대 말까지 계속



되었다. 1991년 소련은 15개 독립국으로 분리되면서 연방이 붕괴되고, 중공은 1992년에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음으로써 적성국가의 위치에서 멀어졌다. 1965년 6월에는 정부가 일본과 한일기본협정을 조인하고 한일의 교류를 재개하였지만, 일본과 한국의 역사는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청산되지 않은 채였다. 『학생과학』이 간행되던 시절은 냉전이 최고조로 진행되던 시기였다.

UFO를 중공이 보낸 간첩 풍선이 아닐까 추측한 학생(서기로, 『북극성의 증언』, 1965-66), 우리나라 경박사가 외계인의 질병을 고치러 우주로 떠날 때 방해공작을 하는 S연방(신문성, 『SOS 안드로이드』, 1981), 이순신의 과학정신으로 일본 수산학자가 못한 일을 해내어 세계에 우리나라를 빛내려는 충무호의 박사들(서기로, 『해류시그마의 비밀』, 1967), 한국이 우수한 과학기술로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 충돌을 억제하여 평화를 이루는 주도자가 된다는 내용(서광운, 『관제탑을 폭파하라』, 1968) 등에서 적대적 국가에 대한 생각은 여과 없이 드러난다. 반면 미국과 한국의 우호적인 관계는 오민영의 『화성호는 어디로』(1967-68)에서 보이듯 한국청소년 강성일과 미국청소년 잭크가 화성탐험에 동행함으로써 실현된다.

‘과학적 애국주의’는 ‘이웃나라의 과학과 이해가 맞설 적’에 당연히 불끈 일어나는 신념과 같은 것으로서 취급되었다.<sup>16)</sup> 서광운은 『관제탑을 폭파하라』(1968)에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개발한 허력에너지가 러시아의 연구보다 한 발 앞서 있어서 러시아의 경쟁상대가 되고, 일본이 기상위성 문제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일 양국간 긴장이 조성된다. 소련과 일본의 관계도 적대적이다. 한국, 일본, 소련 세 나라간의 국제적인 과학 첩보전이 벌어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우리 과학자인 김철수 박

16) 서광운, 『관제탑을 폭파하라』, 68.1. 157쪽, ‘작자의 말’ 중에서.

사와 정보부 과학과원인 김민수 형제의 애국적 활약상이 그려진다.

‘진리를 밝히려는 과학에 대한 신앙심’과 ‘민족심’이 결합하면서 애국적 과학주의는 한 단계 상향으로 고양되었다(서광운의 『절대시간 003으로!』, 1974-75). 이 정신은 물질의 기원을 찾아 먼 여정을 떠난 한국 우주원정대가 고단한 과정을 버티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과학적 애국주의는 극단적 자존감의 형태로 표현된다. 세계 최초로 에너지를 개발한 김철수 박사(서광운, 『관제탑을 폭파하라』, 1968), 원자핵물리학자로서 새 원소를 발견하여 노벨상 후보자가 된 구남섭 박사(문흥기, 『코리아톱 254를 찾아라』, 1979), 공학, 의학, 고고학을 두루 섭렵하여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외계인의 표적이 되는 구운경 박사(문흥기, 『환상의 제국 곤드나와시터를 찾아라』, 1979-80) 등 많은 소설에서 다국적 탐험대에서 한국인이 반드시 대장이 되고 한국과학자는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석학으로 등장한다. 당시 우리 과학계의 후진성을 고려하면 이는 지나친 선민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과도한 애국심이 심리적 기제로 작동한 과학주의는 20세기 들어서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 수없이 좌절을 경험했던 민족의 한이 청소년 과학소설에 여과 없이 즉각적으로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을 과학영웅으로 숭배한 것은 애국심과 과학주의의 결합에서부터였다. 우리 정치사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숭상하는 분위기는 1960년대 초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곧바로 이순신 장군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1962년 3월에 현충사 경내를 확장하고 유물전시관을 신축하였고 1967년 3월에는 현충사를 사적 제 155호로 지정하였다. 현재 청와대와 경복궁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광화문 중심에 이순신 동상을 세운 시기는 1968년 4월이었다. 당시 초중고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이나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으로 현충사를

다녀오는 일은 일반적인 교육의 과정이었다. 이순신과 과학의 연결은 거북선인데, 거북선은 세계최초의 돌격용 철갑전선으로서 원리의 과학적 우수성이 부각되어 지금까지 교육의 커리큘럼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을 과학정신과 연결한 작품은 서기로의 『해류시그마의 비밀』(1967)이다. 소설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탐사선이 충무호로 제명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한다. “어떤 이는 충무공이 군인이었던 까닭으로 평화적인 해양관측선의 선명으로는 적당치 않다고 지적하고 차라리 십자성(十字星)호를 주장했다. 어떤 이는 남양(南洋)호라는 이름을 고집했으나 대서양까지 진출하기에는 어감이 적당치 않다고 반대하기도 했다. 선박은 보통 여성명사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김 학장은 충무공의 과학정신을 떠받치는 점과 대양으로 나가면 외롭다는 점에서 위대한 선각자의 사람이름을 끝내 주장한 것이었다.”(1967.1. 50-51쪽) 이 설명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새 시대 새 교육을 자처했던 『학생과학』지의 편집방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충무호 제명을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보면 아직 국민들 사이에 충무공에 대한 무조건적 숭배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김 학장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누르고 여성명사로 이름을 짓는 관례까지 깬다. 나아가 충무공의 과학정신을 본받자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충무호로 제명하는 김 학장의 강제성은 충무공 정신을 강조한 정치권과 같은 생각으로 연결된다. 청소년 과학소설의 과학정신으로 과학자가 아닌 이순신이 설정된 것은 작가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 정치적 분위기의 반영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처럼 충무공 이순신은 정치적 호명을 넘어서서 과학의 아이콘이 되었다.

과학소설 속의 우주사회는 무한으로 확장한 지구촌이다. 우주과학시대는 어떤 사회학으로 움직이며 여기에 맞는 새로운 법적 질서는 무엇

을 기준으로 하는가. 지구인과 외계인이 공존하는 청소년 소설에서 과연 우리 작가는 어떤 상황을 상상하는가. 우선 지구 내의 통합은 통합정부(오민영, 『사건 2732년!』, 1971-72), 유엔(오민영, 『화성호는 어디로』, 1967-68), 하나의 국가(강성철, 『서기 2026년』, 1974-75) 등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지구 외 행성간의 갈등상황을 보여주며 해결책을 제안하려는 소설이 많다. 지구를 포함한 은하계의 갈등상황은 행성 간 전쟁(오민영, 『사건 2732년!』, 1971-72) 또는 행성 내의 내전(서광운, 『우주합대의 최후』, 1969)을 종식하는 문제, 외계 행성의 특수한 질병을 지구인이 치료하는 상황(신문성, 『SOS 안드로이드』, 1981), 지구인을 납치한 외계 행성인의 처리(강성철, 『우주에서의 약속』, 1968) 등이다. 그 중 가장 비극적인 갈등상황은 계층문제이다. 과학의 비윤리적 실행으로 유전자를 조작하여 노예로 쓸 생물체를 생산하는 일(서광운, 『아공간의 밀사』, 1977), 과학문명이 더 발달한 행성이 덜 발달한 행성인을 노예로 삼는 일(서기로, 『북극성의 증언』, 1965-66) 등 지배자들의 비인도적 사고는 우주과학시대에도 반복된다. 인류의 역사에서 여러 이유로 되풀이되었던 계층문제는 과학시대의 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지배행성인과 식민노예층이 분류되는 기준은 과학의 발달정도에 있다.

‘과학이나 인도주의냐의 도덕성 문제는 서광운의 『아공간의 밀사』(1977)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다. 한국우주탐험대는 RY3호별에서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다. 그 행성은 지배자인 개미인간, 로봇, 유전변이로 태어난 반인반수층이 살고 있다. 다모토리는 중학생 정도의 아이큐로 몸만 튼튼하게 농부용 짐승으로 유전 조작되어 태어난 생물이며, 반인반수층으로 심지어 로봇보다도 아래 계층에 위치한다. 다모토리족은 한국우주탐험대를 찾아와 자기네를 해방시켜달라고 부탁하고, 한국우주탐험대는 다모토리의 유전자구조식을 풀어서 다시 완전한 생물체로 환원시키는

일에 동참한다. 개미문명인들이 기이한 실험을 자행한 일은 우주사회의 무법적, 비인도적 사례로 최근 과학계의 이슈인 과학윤리 문제를 일찌감치 보여준다.

서기로의 『북극성의 증언』(1965-66)은 과학문명의 발달정도에 따라 행성인간의 계층이 형성된 모습을 상세히 전시한다. 사무하라는 프로구시마인은 납치해온 지구인을 보고 산소냄새가 역하고 원시동물 같다고 평하면서 문명을 발달시키라고 말한다. 사무하가 말하는 ‘우주사회학’은 ‘이성’ 유일주의에 가깝다. 프로구시마별의 헌법1조는 “우리는 이성적이어야 한다.”이며, 그는 지구인이 과학발달을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을 지구인의 감정 과다에서 찾는다. 자기네 별 사람들은 감정, 미신, 종교 등을 버리고 오로지 이성으로 과학을 발전시켰다고 한다. 노예계층인 오후레족은 프로구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반란을 일으킨다. 작가는 우주사회학의 필요성을 여러 작품에서 주장하고, 이 작품에서 작가의 생각이 사무하 쪽에 기울어있지만 소설 속의 지구인들의 마음은 오후레족의 판단에 공감을 한다.

우주과학시대에 이에 적용할 사회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작가 서광운은 『우주합대의 최후』(1969)에서 우주사회학의 개념을 지구과학자의 생각으로 재구성한다. 이만석 박사는 ‘가장 합리적으로 인간을 진화시키는 지름길’을 연구하는 것이 ‘우주사회학’의 목적이라는 강의를 한다. 이 박사는 “처음부터 과학적인 바탕에서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낙원을 건설할 수가 있을까?”(1969.1. 157쪽)를 고민한다. 그러나 그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봉한 채 완전한 이성적 과학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한다. 이는 매우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데가 있다. 현실을 떠난 ‘낙원’은 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청소년 주인공의 배려있는 판단이 우주시대의 사회학을 옹계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오민영의 『화성호는 어디로』(1967-68)에는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이 나온다. 미국 소년 잭크는 “지구의 인간이 제멋대로 그런 짓을 해도 괜찮을까? 생각해보았다. 화성에는 화성의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지구인은 화성의 침입자라는 것이 된다.”(1968.3.157쪽) 잭크는 심성이 따뜻한 청소년이라서 행성간의 폭력이나 억압을 반대하고 각 행성의 주인이 대등하게 살아가는 우주시대를 꿈꾼다. 이는 우주간의 평등한 조화를 희망하는 사회학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이 한국과 미국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난 소설인 만큼 미국 청소년의 생각은 한국 청소년 독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 청소년 과학소설은 과학을 애국주의의 관점에서 수용하여 우주시대에 필요한 평등한 과학사회학의 구상으로 소설세계를 확대하였다. 과학사회학은 나중에 우주통합안(문흥기, 『환상의 제국 곧드 나와시터를 찾아라』, 1979-80) 또는 우주연합의 제 법률(강성철, 『우주에서의 약속』, 1968)로 소설화한다. 제 법률은 우주표준어 구상, 종족 간 결혼금지법, 종족간 금기사항 등 각각의 소설 내용에 맞는 작가의 상상으로 이어졌다.

## 6. 결론

1960년대에 불기 시작한 과학주의의 신편(新風)은 어디로 전진했는가. ‘청소년을 위한 국내 유일의 과학교양지’로서 『학생과학』지의 수명이 다해가던 시기의 소설들을 통해 그 바람이 도달한 지점을 탐색해보자. 1970년대 후반기부터 잡지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은 꾸준히 창

작물을 내놓던 대표 작가들이 잘 보이지 않고, 그 빈 자리를 비창작물들이 메우고 있는 점이다. 서광운처럼 꾸준히 장편을 창작해온 작가가 『아 공간의 밀사』(1977)에서 격월로 세 편만 연재한 채 중단한 일, 오민영이나 이동성, 강성철 같은 대표 작가들의 작품이 보이지 않는 현상은 『학생과학』지의 모종의 변화를 느끼게 해준다. 번안작으로 의심되는 작품(문흥기, 『코리아툼 254를 찾아라』, 1979)이나 번안작들이 창작연재코너를 차지하거나, 흥미로운 교육이 주목적으로 보이는 기획류 과학소설(문흥기, 『환상의 제국 곤드나와시티를 찾아라』, 1979-80)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 가운데 이형수의 작품은 청소년 과학소설의 향방을 짐작하게 한다.

청소년 과학소설사는 마치 천천히 침몰하는 배의 격실에 유폐된 상황이 비유될 만하였다. 이형수의 『잠수함 유격대』(1976-77)는 초능력을 지닌 전 세계 300명의 청소년들이 한국인 대장 장운룡을 중심으로 모여서 외계의 적 판타즈마와 싸우는 내용의 과학소설이다. 월남인 소년 구엔은 전쟁고아다. 알다시피 베트남전쟁은 1960년에 시작되어 1975년에 끝난 길고 지루한 전쟁이었고 많은 고아를 만들어냈다. 유격대 대장은 자신이 한국전쟁 고아이기 때문에 구엔 소년의 마음을 읽으면서 동질의 정치적 시대적 비장함을 느낀다. 이밖에도 미국소녀 에이미가 가난을 이유로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로 나오는 등 아이들의 신상과 생각을 보면 부모 즉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전 세계의 어른들은 요즘의 젊은이들은 예의를 지킬 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야말로 전혀 예의를 모르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1976.1.171쪽)는 것이다. ‘어른들은 평화와 정의를 말로만 하고 바라지는 않는다’ 또는 ‘어른들에게 세상을 맡겨둘 수가 없다’는 생각이 이야기를 지배하고 있다. 불온한 시대의 현실을 비판하는 것, 따라서 이 소설은 베트남전쟁이 끝난 직후에 나온

정치비판적 과학소설로 읽힌다. 진짜 지구의 적은 외계에 있는데 어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구 내의 국가들끼리 전쟁을 일삼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이 소설의 주제이다.

청소년 과학소설이 ‘청소년나라’에 유폐되는 현상은 문제적 ‘어른나라’를 상징적, 우의적으로 공격하는 데 적절한 하나의 문학적 상상이다. 한편 이는 판타지 동화에서 이원수가 했던 시도를 반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원수의 『숲속나라』(『어린이나라』, 1949.2-12), 『잔디 숲 속의 이쁜이』(계몽사, 1973)는 어른과 어린이의 세계를 현실과 환상으로 경계를 지은 후 어른은 진입이 금지되고 어린이들만으로 이룬 강력한 유토피아 동화를 쓴 적이 있다.<sup>17)</sup> 어른나라를 부정하고 청소년나라를 구상하는 일은 우화처럼 명쾌하게 이해된다. 현실과 유리된 판타지라는 맥락에서 이형수의 『잠수함 유격대』는 이원수 동화의 청소년버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콤플렉스의 증상이다. 초능력자인 장운룡 대장은 시간이 흘러도 신비롭게도 어른이 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세계에 살고 싶지 않다는 욕망의 표현이다. 『학생과학』은 그동안 기성세대의 지침을 따라 과학시대의 청소년으로 잘 자라는 모습을 보여 왔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청소년나라’의 문을 안에서 잠그는 시도는 불온한 기성세대와 자발적으로 결별하는 동시에 새로운 청년문화를 형성하는 모종의 변곡점일 수도 있다.

청소년용 『학생과학』은 새 정권의 국가이데올로기와 과학 선진국을 향한 꿈으로 빙의된 잡지로서, 1965년에 기획된 이래 약 20년간 과학의 교양과 교육을 담당하며 애국적 과학도를 생산하는 데 힘썼다. 따라서

17) 조은숙, 『동화와 환상에 대한 단상』, 대중문화와 환상서사 세미나 발표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문화연구단, 2014.6.26.



『학생과학』지에 수록된 청소년 과학소설은 지나친 오락성을 배제하고 과학지식이나 과학계의 이슈 등을 소설화함으로써 당시로서는 최첨단 과학교육의 미션에 지속적으로 동원되었다. 열강의 우주경쟁으로 선동된 ‘과학주의’는 초대형 태풍으로 한반도를 향해 전진하였다. 과학주의는 때마침 새 정부로 리셋한 우리나라의 ‘젊은 얼’ 속에 ‘신풍(新風)’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 청소년과학소설은 빙의된 환상의 시간을 보내다가 중국에는 ‘청소년나라’로 유포되는 문제적 환상의 제국으로 귀결되었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1

월간 『학생과학』(1965.11-1984.4)에 수록된 한국 청소년과학소설

1. 이동성, 과학소설 『크로마농인의 비밀을 밝혀라』, 65.11. 창간호-66.5(미완성).
2. 서기로, 과학소설 『북극성의 증언』, 65.12-66.12(13회 완성).
3. 박석기, 과학단편소설 『기적』, 66.2.
4. 강성철, SF 『방랑하는 상대성인』, 66.8-11(4회 완성).
5. 오민영, SF 『지저인 오리거』, 66.12-67.3(4회 완성).
6. 서기로, 과학소설 『해류 시그마의 비밀』, 67.1-67.12(12회 완성).
7. 지영, SF 『이별』, 67.4.
8. 오민영, 과학소설 『화성호는 어디로』, 67.6-68.4까지 확인.
9. 서광운, 과학소설 『관제탑을 폭파하라』, 68.1-68.12(완성).
10. 강성철, 과학소설 『우주에서의 약속』, 68.9-68.11(3회 완성).
11. 오민영, 과학소설 『해양소설』 『바다밑 대륙을 찾아서』, 68.12-69.6(7회 완성).
12. 서광운, 과학소설 『우주소설』 『우주함대의 최후』, 69.1-69.6까지 확인.
13. 김학수, 우주소설 『우주 조난』, 71.8-71.10(3회 완성).
14. 이동성, SF 『과학추리소설』 『악마박사』, 71.8-72.10(14회 완성).
15. 오민영, SF 『사건 2732년!』, 71.11-72.5(7회 완성).
16. 이동성, 과학소설 『지문의 비밀』, 72.11-73.6, 73.8-10(11회 완성).
17. 서광운, 우주소설 『절대시간 003으로!』, 74.1-6까지 확인.
18. 강성철, 『서기 2026년』, 74.11?-75.12(14회 완성).
19. 이형수, 『잠수함 유격대』, 76.1-8, 10-77.3(14회 완성).
20. 서광운, SF 『아공간의 밀사』, 77.5,7,9(미완).
21. 문흥기, 『코리아룸 254를 찾아라』, 79.6-8(3회 완성).
22. 주승원, 『사라진 원자력잠수함을 찾아라』, 79.9-11(3회 완성).
23. 문흥기, SF소설 『환상의 제국 곤드와나시터를 찾아라』, 79.12-80.6, 80.8-11(11회 완성).
24. 신문성, SF 『SOS 안드로이드』, 81.1-12(11회까지 확인).
25. 김병일, 공상과학소설 『21세기의 인형극』, 81.3-81.5.

## 기본 자료 2

『동아일보』, 1959.4.13-14., 1959.4.24-25., 1969.7.30.

### 논문 및 단행본

- 김지영, 『1960-70년대 청소년과학소설 장르 연구 - 『한국과학소설(SF)전집』(1975)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35집, 동남어문학회, 2013.5, 125-149쪽.
- 대중문학연구회,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 송성수, 『과학기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40-55쪽.
- 이정옥,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로 떠난 모험 여행의 서사 - 문운성의 〈완전사회〉론』, 대중문학연구회,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139-165쪽.
- 임태훈, 『1960년대 남한사회의 SF적 상상력: 재앙부조, 완전사회, 학생과학』, 『우애의 미디어로지』, 갈무리, 2012, 239-273쪽.
- 조계숙, 『탐정소설의 민족주의적 의장과 대중오락화』, 대중서사장르연구회 지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3.추리물』, 이론과실천, 2011, 354-386쪽.
- 조계숙, 『알개들의 전성시대와 웃음의 수사학』, 대중서사장르연구회 지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4.코미디』, 이론과실천, 2013, 240-266쪽.
- 조은숙, 『동화와 환상에 대한 단상』, 대중문화와 환상서사 세미나 발표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문화연구단, 2014.6.26.
- 최애순, 『우주시대의 과학소설 - 1970년대 아동전집 SF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13.9, 213-242쪽.
- 한민주, 『인조인간의 출현과 근대SF문학의 테크노크라시 - 『인조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5, 한국근대문학회, 2012, 417-448쪽.

## Abstract

National Ideology & SF, Korean Science Fictions for Young Adults  
– A Study on Korean Science Fictions in the Magazine *Haksaeng Gwahak*

Cho, Gye-Sook (Daejin Univ.)

*Haksaeng Gwahak*, which stands for 'the only science magazine for young adults', was published in 1960's. Science Fictions in the magazine are very important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made science policies including new national ideology. Space race overseas in 1960's also inflated scientism. *Haksaeng Gwahak* followed policies of the administration very positively. Seo Kwang-oon, O Min-Young, Kang Sung-Chul and Yi Dong-Sung were main writers in the magazine. They reflected atmospheres of the time when they created novels.

The new wave of scientism triggered 'young soul' and built a huge fantasy empire. In their science novels, heroes emphasized scientific armament and never allowed science repression. There always was utopia in the end of stories instead of dystopia.

The wave became more stronger when scientism was combined with patriotism. The idolization of General Yi Sun-Shin is one case of scientific patriotism in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Novels continuously showed science-sociology applying to the space age. When a new type of novel, which allegorically attacked mindset of older generation, appeared in the end of 1970's, *Haksaeng Gwahak* faced a turning point.

(Key Words: Science Fiction for Young Adults, *Haksaeng Gwahak*, Seo Kwang-Un, O Min-Young, Kang Sung-Chul, Lee Dong-Sung, Science Education, Scientific Patriotism, Science-Sociology, Fantasy Empire)

이 위 논문은 2014년 10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11월 3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